

## 자연보전, 공존과 상생의 부탄왕국<sup>1)</sup>

**박대문**

(현) 식물분류기사, 시인

(전)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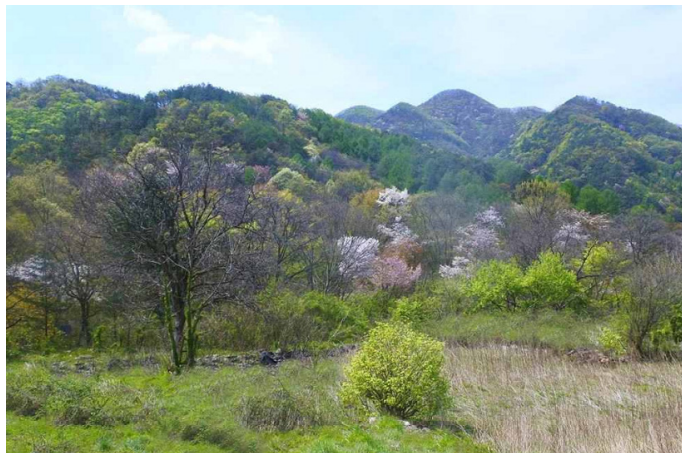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관리관)

(전) 수도권 매립지공사 사장

(전) 강원풍력 사장 (주) 사장

### 1. 자연 놀이터, 실개천의 흙탕물과 환경용량

어린 시절에 마을 앞 실개천은 언제나 즐거운 놀이터였다. 첨병첨병 물속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미꾸리, 송사리를 잡는다고 물속 풀더미를 이리저리 헤집고 쑤시고 하다 보면 어느새 옷이 다 젖기도 했다. 옷이 물에 젖으면 냇가 풀 위에 얹어놓고 말리는 동안 모래집 놀이도 하곤 했다. 물속의 미꾸리를 잡으려 조심조심 손을 내밀어 접근할 때 이를 눈치챈 미꾸리는 꼬리를 흔들며 흙탕물을 일으키며,



〈그림 1〉 봄날, 마을 앞 실개천이 흐르는 시골 풍경

1) Conservation of Natur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n Kingdom of Bhutan.

2) PARK, daemoon, freecolumn group, E-mail: dmpark05@naver.com

흙탕물 속으로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면 흙탕물은 곧 가라앉아 물은 맑아졌다. 그러나 이를 잡겠다고 물속을 걷는 내 발자국의 흙탕물이 더 오랫동안 지속하여 실개천이 맑아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일어나는 흙탕물과 달리 개천 상류에서 독막이 공사를 하거나 모래 채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생긴 흙탕물은 몇 시간, 때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는 며칠 동안 흙탕물이 지속하기도 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 바로 흙탕물이 발생하는 범위와 농도, 그리고 하천의 크기와 물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흙탕물을 오염물질이라 한다면 흙탕물의 농도와 지속시간은 하천의 크기인 물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다. 한 잔의 커피잔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커피잔의 물이 파랗게 물들겠지만, 이보다 훨씬 큰 항아리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항아리 물이 파랗게 물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또한 흙탕물의 농도는 하천의 크기인 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시간은 하천물이 흐르는 속도와 관계가 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흙탕물은 더욱더 빨리 맑아진다. 흙탕물이 물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오염물질이나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연 상태, 즉 환경용량에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문제는 허용 한도 범위 이내인가 밖인가에 있다.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훼손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회복이 더디거나 파괴, 훼손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거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계까지는 스스로 견디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를 자가치유능력이라 한다. 우리가 사는 주위 환경 그리고 우리 몸에도 수많은 세균과 잡균이 있다. 하지만 그 세균이 미미하거나 우리 몸이 이를 감당할 힘이 있을 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를 면역력이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있어 상대방이 아무리 화나게 굴어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수용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폭발하고 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자연환경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부가 훼손되고 오염이 될지라도 스스로 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환경을 훼손,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자연 허용 범위 안에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정화능력 또는 환경용량이라 한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기준점은 환경용량이라 할 수 있다.

## 2. 자연, 지구환경, 생태계

우리가 사는 원래의 세상 모습,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등의 존재와 더불어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지질적 환경을 자연이라 한다. 여기에 인공적인 것도 포함한 지구 표면이나 지하의 현상 또는 대기권(大氣圈)과 수권(水圈)과의 상호작용을 지구환경이라고 한다. 지구환경은 크게 대기권, 수(水)권, 토양권, 암석권, 생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물리·화학적 주변환경과 유기적인 집합을 이룰 때 이를 생태계(ecosystem)라고 한다.

생태계는 크게 살아 있는 생물적(biotic) 요소와 물리·화학적인 비생물적(abiotic)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생물적 요소로는 다양한 식물, 동물, 미생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종합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비생물적 요소로는 대기, 기후, 토양, 물 등 생물을 제외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화학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적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의 형태를 결정하고, 생물적 요소 또한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환경을 바꾸어 생태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관계이다.

지구생태계는 수없는 생태계들의 존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생태계에서는 세균(bacteria) 또는 고균(archaea)만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생물권의 환경을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었다. 생태계 속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태양에너지로 살아간다. 태양에너지를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물질로 변환, 생산하는 것은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식물이다. 지구생태계에서는 이를 생산자라 한다. 식물은 또 광합성을 할 때 산소를 내뿜어 동물의 산소 호흡을 돕고 있다. 생산자인 식물이 만든 영양물질을 기반으로 모든 생물이 먹이사슬에 따라 1, 2, 3차 소비자가 되며, 이들이 죽으면 이를 다시 무기물질로 분해하는 것은 세균, 버섯, 곰팡이와 같은 분해자이다. 죽은 생물의 몸은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의 거름이 된다. 건전한 지구생태계란 이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균형을 이루며 교란되지 않은 순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구생태계에서는 이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생태계 삼총사라고도 부른다. 인간은 생물권에 속하는 수많은 소비자 중의 지극히 미미한 한 종일 뿐이다.

원래 그대로인 지구의 모습과 그 속의 생태계를 자연이라 한다. 인간은 지구를 구성하는 대자연, 즉 대기권, 수(水)권, 토양권, 암석권, 생물권 중에서 생물권의 한 종인 소비자에 불과하고, 많고 많은 소비자 생명체 중의 한 종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 : 현생인류)일 뿐이다. 지구 역사 46억 년 중 삼엽충, 절지동물 등 최초 육상식물이 출현한 것이 5억 7천만 년 전인데, 현생

인류의 출현은 신생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불과 4~3만 년 전이다. 이 인류가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자연 속의 극히 작은 생물권의 소비자 중 막내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일 뿐인데, 이들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 밖의 나머지 지구 생태를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 3. 환경, 지극히 인간 중심의 용어이다.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무엇인가 중심이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 중심을 둘러싼 주변 여건을 환경이라고 한다. 자연 속의 일부인 인간이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자연을 환경으로 보는 시각은 서구의 인본주의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생겨난 용어이다. 동양에서는 인간도 자연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기에 자연을 인간 중심의 용어인 환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인간도 천지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생물 종(種)일 뿐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인 환경 속에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 환경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인간도 한때는 생물의 한 종(種)으로서 자연에 철저히 생명을 의존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점차 자연의 변화를 부분적이거나 사전에 알게 되고,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와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나아가 축적된 지혜와 기술, 자본으로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 훼손할 힘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테에까지 이르도록 오만해졌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위기가, 지구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지구 걱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것은 인간이지 지구가 아니다. 인간은 건강한 지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지구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는 그 안에 어떤 종(種)이 주도적인 삶을 이어갈지라도 그 종에게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며, 새로이 태어난 생명을 받아들여 융성케 할 뿐이다.

### 4. 동서양의 환경관

동양 사회에서는 예부터 “順天者 興하고 逆天子 亡”이라 했다. 순천(順天)은 변화를 의미한다. 자연에의 순응이다. 순천(順天)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하늘은 자연이다. 자연은 급변하지 않는다. 자연을 거스르는 예기치 못한 급변을 시도하는 것은 순천(順天)이 아니라 혁명(革命)이다. 변하는 자연에

맞춰 자연스럽게 공존상생(共存相生)의 길을 택할 때 인간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간에도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의 문명과 문화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다. 땅 위의 평화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평화만을 생각한다. 인간과 자연과 화해, 상생공존(相生共存)에 의한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없다. 자연과 화해가 없이는 인류는 생의 터전을 잃고, 자연의 재앙 속에 종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을 정복과 이용,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다.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한결같이 믿어온 암암리의 대전제가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한한 것을 제공해 주는 불변의 장(場)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사회구조를 이끄는 2개의 축(軸), 즉 법적, 경제적 인식과 행동 속에서 이러한 전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헌법에 선언된 환경권의 주체는 인간이며, 객체는 공기, 물, 자연이다. 그러나 환경권의 객체인 자연이 훼손, 오염됐을 때 이의 배상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자원의 채취와 고갈은 국민소득의 창출로 다루지만, 채취한 환경자원으로 만든 제품의 폐기와 분해, 자연에 환원되어 생산요소로 재투입하기까지의 순환과정은 무시하고 있다. 환경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재로만 보아왔던 것이 근대경제학 이론이다.

이러한 사상적 근원은 서양의 세계관, 즉 인간본위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이 지구상의 자연계 자원이건 생물이건 모든 것 위에 인간이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8절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어떠한가? 동양의 사고방식은 자연우위(자연숭배) 아니면 자연동화사상이다. 자연 속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하늘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인간의 숭배대상이었다. 자연 위에 인간이 군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장자(莊子)는 제물론편(劑物論偏)에서 “天地는 與我 並存하고 萬物은 與我 爲一 (천지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이라 했다. 우리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살아가고, 생명체, 무생명체를 다 포함한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뿐만 아니라, 흙덩이, 돌멩이 하나까지, 나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고, 공존상생(共存相生)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천지만물, 너와 나, 모두가 한 형제요, 하나라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 우리의 이웃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삶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만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는 것이다.

## 5. 행복한 삶과 행복지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의 증가가 물질적 풍요와 함께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여겼으나 그게 아니었다. 성장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의 후생과 복지의 증진, 즉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성장의 결과물인 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른 전통과 문화 가치의 상실, 여가활동의 제한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에 당면하면서 GNP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완전하지 못함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성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생지표를 찾는 가운데 부탄의 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행복지수(GNH)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내건 최초의 나라가 부탄왕국이다. 부탄은 히말라야산맥 동쪽 기슭의 산악국가로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왕국이다. 1972년 당시의 통치자였던 4대 국왕 지그메 싱게 왕축(Jigme Singye Wangchuck 1972~2006 재위)은 국민들의 물질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경제체제를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후생 지표를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고 명명하고 부탄왕국은 국민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것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부탄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보호, 문화 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이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경제재단(NEF)은 2010년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 부탄은 1위를 차지했다.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탄은 조사에 응답한 국민 가운데 97%가 행복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탄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배나 높은 대한민국은 143개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정도에 그치는 최빈국 부탄에서 어떻게 행복지수 세계 1위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라이프핵(www.lifehack.org)은 2014년 10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8가지 요인을 분석해 소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

탄 사람들은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을 동등하게 여기고, 국내총생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에 신경 쓰지 않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불교도이며, 사회지도층과 일반인들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고 아름다운 경관과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통한 휴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각박한 현대인의 불꽃 튀는 경쟁과 스트레스, 빈부와 우열의 격차에 따른 절망감과는 거리가 먼 일상임이 느껴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과 충분한 휴식이 행복에 이르는 길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발전과 변화를 위한 진취적 욕망과 외부 문명 세계와의 교류가 없는 구태의연한 삶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 6. 자연과 함께하는 삶, 부탄

행복지수 1위의 나라라고 알려진 나라, 우리에게 미지의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한 부탄이다. 부탄이 한국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문재인이 부탄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못 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대통령이 된 후 한국을 찾아온 부탄의 보건부 장관에게 ‘부탄의 행복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이다.

필자도 3년 전에 부탄의 자연환경과 야생화 탐사차 부탄을 방문한 적이 있다. 개발된 문명 세계가 아닌 원시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 상생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강



〈그림 2〉 히말라야산맥 마상강(7,194m), -Dochula(3,140m)에서

하게 받은 바 있다. 이때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부탄의 자연과의 공존상생에 관한 실상을 살펴보고, 이를 교훈 삼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연과의 공존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부탄은 인구 78만명에 국토면적은 38,400km<sup>2</sup>이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는 5,200만 명에 국토면적은 10만km<sup>2</sup>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면적은 40%에 인구수는 1.5%이다. 인구와 비교해 땅이 넓은 지역이므로 산간 농가도 밀집해 있지 않고 듽성듬성 떨어져 있다. 옆집의 생활과 모습을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패턴대로 자유롭게 일하고 쉴 수 있다. 길가에 스치는 집들이나 가 본 곳은 우리의 옛 시골 모습이 연상되었지만 궁색해 보이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미소가 있는 밝고 편안한 모습이였다.

부탄 국토의 절반은 국립공원으로 보호되고 있다. 국토의 60%는 자연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이 나라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거의 없다.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감을 크게 높여주기에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물질적 풍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훼손과 오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국민총행복(GNH) 증진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탄은 동물의 자연까지 행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전통적 가치와 제도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탄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을 제외한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땅이었다. 1960년대 부탄에는 전기, 전화, 우체국, 은행은 물론 자동차도 없는, 세상과 격리된 원시 자연 그대로의 숨겨진 땅이었다. 부탄에 처음으로 도로가 개통된 것은 1962년, TV와 인터넷은 1999년에 이르러서야 보급되기 시작했다. 부탄 정부는 1970년대에 이르러 관광객에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전통 문화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간 입국자 수를 쿼터제로 제한하고 있다. 비싼 체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광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고 있어 개별 배낭여행은 엄두를 낼 수 없게 하는 관광정책을 쓰고 있다.

전 국민의 75%가 불교도인 부탄의 수도승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름은 해발고도 2,000m인 팀푸에서 보내고, 겨울은 해발고도가 1,400m로서 기후가 따뜻한 푸나카로 오가는 계절적인 이동 체제를 유지해왔을 만큼 자연맞춤형 삶과 문화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부탄에는 기차, 비행기, 배도 없어 근대화된 주요 운송 교통수단은 오직 자동차뿐이다. 부탄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오랜 기간 독립적인 문화를 이어왔다. 그 때문에 긴 세월 아름다운 자연과 특유의 삶의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다.



## 7. 부탄 포브지카 계곡의 검은목두루미 생태보전 상황

세계적인 아름다운 계곡으로 이름난 부탄의 포브지카(Phobjikha)는 세계적 희귀 멸종동물인 검은목두루미(Black Necked Crane)가 겨울을 지내는 곳으로, 부탄에서 가장 중요한 야생 동물 보호 지역 중 하나이다. 2016년 ‘강티-포비지(Gangtey-Phobji wetlands) 람사르 협약 사이트’로 지정된 곳이다. 석양 무렵 계곡 전체에서 검은목두루미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습지 벌판으로 모여드는 광경은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이곳 습지에는 먹거리가 풍부하여 검은목두루미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생 조류의 낙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해발 3,000m에 이르는 고원 습지 포브지카, 습지 둘레에는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고, 물기 없는 산기슭 언덕에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산다. 습지 벌판 중심지는 야생 동물의 삶의 터전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주민과 야생동물이 공존상생하고 있는 현장이다.

포브지카는 사람과 가축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구역이다. 오랜 옛날부터 이곳은 야생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원시의 땅이요 은둔의 땅이었다. 소규모 수력발전이 잘 발달해 있는 부탄은 전력이 풍부하여 인도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곳 포브지카에서는 송전탑이나 전깃줄을 볼 수 없었다. 검은목두루미 서식지인 이곳 계곡에서는 계곡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전깃줄에 혹여라도 검은목두루미가 날아다니다 전깃줄에 걸려 다치는 일이 있을까 봐 주민 합의에 따라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에 태양광발전을 하거나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장작을 전기 대신 땀감으로 사용한다. 이만큼 검은목두루미에 대한 주민 사랑이 각별함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계곡 중심지는 우기에는 물에 잠기는 습지라서 주민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가축을 방목하기도 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된 지금은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한다. 가축의 방목은 일부 허



〈그림 3〉 포브지카, 강티-포비지 습지  
(Gangtey-Phobji wetlands)

용되지만, 사냥금지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포브지카 계곡에서 이틀간 머무르는 동안 견디기 힘든 것은 한밤의 추위였다. 고도가 높은 곳이라서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푹 떨어지며 추위가 무섭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호텔 방 입구에는 장작더미가 많이 쌓여 있었다. 장작이 많이 있고 난로가 있어 타닥타닥 튀어 오르는 장작불 불꽃을 바라보며 낭만적이고 따뜻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호텔 방에 놓인 장작 난로에 호텔 직원이 와서 불을 지펴주고 나니 장작이 활활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난로 곁에서 따뜻한 불길을 바라보는 것도 잠시, 어느새 장작이 금방 타버리고 말았다. 난로 연통이 바로 호텔 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통에서 불길을 땀기는 힘이 워낙 세기에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하고 바로 열기가 빨려 나간다. 난로가 현대식이 아닌 오래된 구형으로 실내 공기를 덥게 하지도 못하면서 난로 안의 장작은 반 시간 정도만 되면 홀라당 다 타버렸다. 아무리 난로 공기구멍을 막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이 30분 간격으로 장작을 넣어 주어야 하니, 난로 불침번을 서지 않는 한 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다. 장작 한 더미를 넣고 30분 이내에 잠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다시 장작불을 지피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난로 곁에 성냥이 있기에 쉽게 장작불을 지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미리 불쏘시개감을 준비해 놓지 않아 신문지 몇 장만 허비하고 장작불 지피는 것을 포기하고 새벽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불을 못 지피 이불을 뒤집어쓰고 견디어야만 했다. 물론 새벽에 불을 지필 불쏘시개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다음 날은 불쏘시개를 미리 준비한 덕분에 새벽에 일어나 바로 난로에 장작불을 붙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곳 주민의 생활방식이다.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포브지카의 검은목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불편을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숙객의 불편이 따르는 이러한 고충을 자신들도 함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약간의 불편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자연보전이요, 생태계 안의 자연과 생물 상호 간에 공존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체험한 포브지카의 밤이었다.

## 8. 개발의 물결이 어른대는 부탄의 현실 문제

자연에 문혀 욕심부리지 않고 있는 대로 거두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부족함을 모르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 야생의 동물과 가축,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은둔의 베일에 싸인 부탄왕국이다. 유일하게 도로에 교통신호등이 없는 부탄, 국가 수도인 팀푸의 거리에도 교통신호가 없다. 한때는 수도인

팀푸 시내에 교통신호가 있었는데, 어쩐지 부탄답지 않다고 해서 수신호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탄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음이 여기저기서 목격되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에 열을 올리고, 대한민국도 새마을운동으로 경제개발에 총력을 질주할 때인 1972년에 세계 최초로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여 행복 지수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던 부탄이지만 문명의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부탄 국민도 개방된 세계 속의 한 사람으로 기계화되고 현대화된 다른 나라의 생활 모습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알지 못했고, 오랜 전통생활에서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살아왔었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나고, 삶의 지향점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생활방식이 전개될 터인데, 지금과 같은 빈곤 속 안정과 여유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부탄의 유명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자동차 길을 내느라 온통 공사판이었다. 별다른 환경보전 조치와 방지시설 없이 산과 언덕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공사장이 거칠기 한량없어 보였다. 자연경관이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부탄이었다. 그러나 이미 개발의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 9. 마무리 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부탄인

느리게 사는 삶에 익숙해진 이들에게는 기술 발전과 풍요의 사회, 빠르게 변하는 현대문명보다는 가난하지만 느리게, 여유 있는 전통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나름의 행복관이 있다.

부탄의 꽃 탐방을 마치고 오는 전날 밤, 부탄의 파로(Paro)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이드와 함께 송별 파티를 했다. 그때 부탄의 전통음악 연주자가 우리를 위해 전통음악을 선보이면서 했던 말이 가슴에 남는다. 세상을 사는 행복의 비결은 Small, Simple, Slow라고. ‘흘러간 세월도, 다가오는 내일도 없다.’는 것이 그 연주자의 삶의 철학이라고 했다.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 ‘오직 지금 이 시각을,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고운 추억으로 각인시키는 삶의 자세’가 부탄 국민의 행복 비결인가 싶다. 부탄의 저명 예술인이 전통 악기와 음악으로 자리를 함께해주어 부탄의 송별만찬 가든 파티가 잊을 수 없는,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신비의 밤으로 각인되었다.

세계 제일의 행복국가라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부탄왕국, 히말라야 동쪽에 자리잡은 은둔의 왕국, 지구상 마지막 남은 상그릴라와 같은 속리(俗離)의 땅, 예약된 일정 수의 관광객만 받고, 그것도



〈그림 4〉 부탄의 도로공사 현장

하루 200~250달러씩 체류경비를 부탄 정부가 승인한 여행사에 지급해야만 비자가 발급되는 나라. 운전기사과 가이드를 무조건 대동해야 하며,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부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금연 국가이며, 공공장소에서 남자들은 전통복장 착용 의무가 있는 나라. 기차도 없고 공항도 하나밖에 없으며, 경제성장보다는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면적은 남한의 40%에 인구 수는 1.5%인 부탄이 진정 지상낙원은 아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도 자연과 더불어 삶을 즐기며, 자연을 보전하고, 현존하는 생태계 구성원인 들짐승, 날짐승까지 배려하며 사는 부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뜨겁게 솟아오르고, 녹여주고, 밝혀주고 가슴 깊이 각인된 감동의 걱정이 남는 부탄, 이곳에서의 체험 활동에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감이 감도는 나라이기도 했다. 이제 조용히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면서 잔향(殘響)처럼 울리는 부탄의 여운을 마무리한다.

아! 부탄

히말라야 설산(雪山) 동쪽 산자락에  
깊이깊이 들어앉은 은둔의 땅. 막히지는 않았어도  
들고남이 쉽지 않은 머나먼 땅.

기차도 없고 공항도 하나뿐  
고봉 준령의 협곡 사이로 비행기가  
이슬처럼 살포시 내려앉아야 하는 곳.

가진 것 적고 부족함 많아도  
불편 크고 아는 것 없어도  
산새처럼 들풀처럼 자연 더불어 사는 곳.

흘러간 세월, 다가오는 내일보다  
지금의 만족이 행복의 비법이란다.

Small, Simple, Slow.

Carpe Diem.

선학(仙鶴)이 떴 지어 하늘을 날고

천상의 축복이 가득한

속리(俗離)의 땅.

여기가 샹그릴라 아닌가.

세계 최대의 불상(佛像)이 지켜보며

풍다를 흔드는 바람이

행복을 전하는 곳.

탁상공파의 전설이 신비를 더하고

도출라의 비경이 눈을 홀리고

포브지카의 선경에 속세를 잊고  
모닥불 송별연에 신명을 태운 곳.

가슴에 찍힌 주홍글씨런가?  
지울수록 또렷이 살아나는  
아! 잊지 못할 부탄,  
그 잔향(殘響)이 갈수록 크게 울린다.



〈그림 5〉 푸나카 종 (Punakha Dzong),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1637년 건설)